

모두의 토론회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

참가자 사전 학습 자료

토론회 개요

주제 질문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

일 시 2026. 7. 26.(일) 10:00 ~ 18:00

장 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주 최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모두의 토론회'란?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입니다. 복잡하고 찬반이 갈리는 정책일수록 국민의 뜻을 직접 듣고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내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향합니다.

광화문 현판에 한글을 함께 다는 문제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찬반이 팽팽한 주제입니다. 앞서 2026년 3월 31일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1차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번 7월 26일 토론회는 국민 20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숙의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회 당일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설문으로 참가자의 생각을 확인하고, 찬성·반대 양측 전문가의 발제를 들은 뒤, 패널 토론과 조별 소그룹 토론을 거쳐, 마지막에 다시 설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검토 논의로 이어집니다.

이 자료를 읽는 방법

이 자료는 토론회에 앞서 쟁점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어느 한쪽 입장을 권하지 않으며, 찬성과 반대를 같은 비중으로 담았습니다. ① 현황 → ② 찬성 의견 → ③ 반대 의견 순으로 읽어 보시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맨 뒤 붙임의 기사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지금 무엇을 논의하나요?

무엇을 정하는 자리인가요?

이번 논의는 현재 광화문에 걸려 있는 한자 현판을 떼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한글 현판을 하나 더 다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아니라 '병기(추가 설치)'라고 합니다.

단순한 시설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어디까지 원래 모습대로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공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광화문은 어떤 공간인가요?

광화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광화문이 하나의 성격만 지닌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화문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광화문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나라를 대표해 온 장소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자, 그 앞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가 이어지면서 국가적 행사와 시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수백만 명이 찾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많은 사람에게 광화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둘째,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광화문은 1963년에 경복궁과 함께 국가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법에 따라 원래 모습을 지키는 것(원형유지)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새로 더하거나 바꾸는 일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실제로 광화문 현판에 변화를 주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화문 현판은 고증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한자 현판이 처음부터 지금 모습 그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광화문 현판은 역사적 기록과 고증에 근거해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왔습니다.

시기	내용
1865년 (고종 중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며 훈련대장 임태영의 글씨로 한자 현판을 제작 — 현재 현판의 원형
일제강점기 ~ 한국전쟁	경복궁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현판이 옮겨졌고, 한국전쟁 때 소실
현대	광화문을 여러 차례 복원하는 과정에서, 고증 결과에 따라 현판을 조정해 2023년 현재의 한자 현판(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에 이름

세 가지 핵심 쟁점

이번 토론의 큰 질문은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해야 할까요?"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놓인 세 가지 물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쟁점 ① 광화문을 어떤 공간으로 볼 것인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성격과 이어지는 물음입니다. 광화문을 경복궁의 정문, 즉 원래 모습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이자 시민의 공간으로 넓게 볼 것인지가 갈립니다. 여기에는 논의의 범위를 광화문 문루(건물)로 한정할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까지 포함할지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그 위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쟁점 ② 한글이 지닌 상징성을 광화문 현판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한글이 소중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쟁점은 그 가치를 광화문 현판이라는 형태로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경복궁이 한글이 창제된 세종의 공간이므로 그 상징성을 현판에 담자는 견해와, 한글의 가치는 인정하되 기존 한자 현판이 지닌 역사적 의미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습니다. '한글은 소중하다'는 인식과 '한글 현판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쟁점 ③ 문화유산 보존 원칙과 한글 현판은 조화될 수 있는가

문화유산은 원래 모습(원형)과 참됨(진정성)을 지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일이 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가치를 담아 유산을 이어가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 물음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한글 현판을 추가하는 것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일인지, 문화유산의 원형과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인지입니다.

중도·대안 입장도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입장 사이에서 보존과 활용,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무게를 두는 중도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되, 물리적으로 현판을 더하는 대신 디지털이나 빛으로 한글을 표현하거나, 한글날 등 특정한 시기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갈 때는 한자로(문화유산 측면), 나올 때는 한글로(광장을 바라보는 방향) 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2 찬성 의견 — "역사성은 지키고, 국가 정체성은 더하자"

핵심 가치 국가 정체성 · 한글의 상징성

기본 입장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더한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 쓰는 일이다.

찬성하는 입장은 광화문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글을 함께 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에, 오늘의 국가 정체성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 **경복궁은 한글이 창제된 세종의 공간이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을 뿐 아니라 경복궁을 조선의 실질적 법궁으로 완성한 임금이다. 그 공간에서 한글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 **문화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다.** 원형을 한 시점에 고정하기보다 시대의 가치를 더해 가는 것이 오늘날 문화유산 보존의 흐름이다. 프랑스 랭스 대성당, 일본 이세 신궁,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러한 사례로 꼽힌다.
- **훼손이 아니라 확장이다.** 한자 현판은 경복궁 중건의 역사를, 한글 현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여준다. 두 가치는 공존할 수 있다.
- **접근성과 상징 효과가 있다.** 외국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광·홍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세 쟁점에 대한 찬성 입장

- ① **공간** → 광화문은 문화유산을 넘어, 오늘의 국가를 상징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 ② **한글·정체성** → 한글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 상징이므로, 대표 공간에 담을 필요가 있다.
- ③ **보존원칙** → 원형을 지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미래지향적 절충이 가능하다.

3 반대 의견 — "원형과 진정성, 신중해야 한다"

핵심 가치 원형유지 원칙 · 진정성 · 역사성

기본 입장 이미 복원된 광화문의 모습을 오늘의 필요로 다시 바꾸는 데 신중해야 한다. 더하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계승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광화문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판을 하나 더 다는 일이 큰 변화라고 봅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판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다.** 현판은 건물의 명칭·위계·중심을 구성하는 건축 요소다. 하나를 더 다는 순간 두 현판 사이에 중심과 보조의 위계가 생겨, 광화문의 정면 모습과 인상이 달라진다. 작게 설치해도 마찬가지다.
- **문화유산은 원형 보존이 원칙이다.** 광화문은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며, 법은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있다.** 현재 한자 현판은 2023년 고증을 거쳐 새로 제작한 것으로, 곧바로 다시 변경하면 복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 **한자 현판도 우리의 역사다.** 한자 현판은 특정 국가의 소유 표지가 아니라, 조선의 문자 생활과 궁궐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요소다. 정체성이 문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문화유산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광화문에 추가하기 시작하면, 다른 문화유산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 **형상을 바꾸지 않고도 의미를 담을 수 있다.** 한글의 가치는 전시·해설·교육·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해 풍부하게 전할 수 있다.

세 쟁점에 대한 반대 입장

- ① **공간** → 광화문은 경복궁 복원의 일부인 문화유산이므로,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 ② **한글·정체성** → 한글의 가치에는 공감하되, 그것을 현판이라는 물리적 형태에 새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③ **보존원칙** → 병기는 원형·진정성의 훼손이며, 역사적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

4 붙임: 참고자료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병기(併記)** — 한자 현판을 그대로 두고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것 (교체가 아님)
- **중건(重建)** — 소실·훼손된 건물을 다시 짓는 것 (경복궁은 1865년 고종 때 중건)
- **원형유지 원칙** —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
- **진정성(authenticity)** — 문화유산이 지닌 재료·형태·기법·정신 등의 참됨. 재료뿐 아니라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
- **고증(考證)** — 옛 기록이나 사진 등을 근거로 원래 모습을 확인하는 일

관련 언론 보도·칼럼 (발행일순)

발행일이 최근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칼럼·기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선별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창] 광화문은 복원된 과거다 (이투데이 · 박현택 연필뮤지엄 관장 · 6.5)

<https://www.etoday.co.kr/news/view/2590651>

'조선의 뜻' 지키고, '한글 자부심' 입히자 (더칼럼니스트 · 황인선 · 5.5)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

[구본영 칼럼]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는 시대정신 (파이낸셜뉴스 · 5.4)

<https://www.fnnews.com/news/202605041833530483>

[동서남북] 광화문 현판은 그냥 두라 (조선일보 · 허윤희 · 4.23)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6/04/23/GWZYDAZL3JG5ZFYBOXU7NU5SFU/>

광화문 한글·한자 '쌍현판' 설치는 미완의 타협일 뿐 (중앙일보 · 문소영 · 4.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1480>

'광화문 한글 현판' 더 달기는 시류에 기댄 것이 아니다 (교수신문 · 김영환 · 4.15)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785>

광화문 현판 '한자 밑 한글' 적절한 대안 아니다 (연합뉴스 · 4.3)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2099500546>

백성들 문화 담은 한글 현판, 광화문에 좋지 아니한가 (동아일보 · 조종엽 · 4.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401/133657652/2>

광화문 한글 현판 추진? "국가 정체성" vs "복원 기준 무시" (한국일보 · 4.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115410004772>

광화문에 걸린 것은 현판만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 4.1)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3121490056213>

발제문·자료 출처

-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광화문 한글현판 추가 설치 논의의 경과와 쟁점」
- 박현모(세종국가경영연구원),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왜 지금 필요한가」
- 김현경(한국전통문화대학교), 「덧붙이는 순간, 광화문은 달라진다」
- 260331 광화문 현판 토론회 자료집

이 자료는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은 발제문과 공개된 의견조사 결과를 같은 비중으로 요약했으며, 어느 한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설문(빠띠 은하투표)**를 함께 진행합니다.

은하투표는 찬반 이분법이 아닌 4점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아니다/매우아니다)로 입장을 측정하고, 응답 분포를 별무리(은하) 형태로 시각화하는 숙의형 투표 도구입니다.

아래 QR 코드로 접속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토론 진행에 반영됩니다.



모두의 토론회 광화문 현판 편 온라인 설문